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1 pp. 170-180,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17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남성 흡연자의 금연시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정순[1*], 여형남[2]
[1]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2]창신대학교 간호학과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s of Smoking Cessation Attempts by Male Smokers'

Jeong-Soon Shin[1*], Hyeong-Nam Yeo[2]
[1]Department of Nursing,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적어도 한 번의 금연 시도 경험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전에 동의를 제공한 남성 흡연자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으며, 개별 심층 면담 결과를 Giorgi(2009)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금연을 시도하게 됨', '여러 차례 금연에 실패함', '간절한 도움이 필요함', '금연을 성공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있음'의 4개 범주 12개의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남성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하면서 강력한 국가의 금연 정책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등 외부의 간접적인 개입이 간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흡연 남성의 금연 시도 경험에 대해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이들의 간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간호 중재를 제공하여, 금연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에 대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수 있음에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semantic structure of male smokers'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attempts. The participants were nine male smokers with at least one smoking cessation attempt, and who responded voluntarily to the preliminary surve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7, and the results of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Giorgi(2009)'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Result: 'Attempt's of smoking cessation', 'Several failed attempts of smoking cessation', 'Desperate need for help' and 'An important factor in the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male smokers were desperate for outside intervention, smoking cessation policies, and help from family members and acquaintances as they tried to cease smo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moking men's experience in smoking cessation, to identify their nursing needs, and provide necessary nursing intervention so that they can lead a healthy life as a member of society without giving up smoking.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smoking men can gain new insights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ir experience

Keywords : Smoking Cessation, Attempts, Experiences, Phenomenological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Corresponding Author : Jeong-Soon Shin(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jsshin6991@naver.com
Received July 30, 2019 Revised August 20, 2019
Accepted November 1, 2019 Published November 30,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600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남성의 12%, 여성의 7%에서 흡연이 주요 사망원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1]. 우리나라 경우 2016년 성인 흡연율은 남자 40.7%, 여자 6.4%로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2], 흡연은 중요한 건강 문제의 하나이지만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흡연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여 흡연을 조기 예방하여야 한다[3]. 선행연구에 의하면 흡연은 중독성이 있어 일단 흡연을 시작한 이후로는 이성적 통제가 잘 안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금연 성공이 어렵다[4]. 하지만 반복적인 금연 시도는 흡연을 중지하는 기간이 길어져 금연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어 지속적인 금연 시도는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5]. 2012년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25.0%대에서 담배 값이 올랐던 2015년 34.6%로 대폭 증가했으나, 2016년 29.7%로 다시 금연 시도율이 감소하고 있다[6]. 이는 담배의 접근성 증가로 흡연 지속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편의점 증가로 담배 판매점이 증가하였고, 담배광고를 어느 편의점에서나 볼 수 있어 금연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재흡연을 유도하기 때문이다[7]. 금연 성공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흡연 노출을 막고 지속적인 금연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0]. WHO의 담배 규제협약에서도 한국의 '담배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금연의 어려움이 있다[8].

흡연은 개개인에 따라 그 이유와 유혹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연을 시도하는 요인 또한 매우 다르며, 금연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의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8]. 많은 금연 프로그램 참여 후 일시적 금연을 유지하기는 용이하나 장기적으로 금연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는 것을 볼 때[9], 장기적으로 금연 성공률을 향상하기 위해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 금연 성공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지역 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지역의 자원을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1].

흡연은 교정이 가능한 건강위험이기에 적극적인 금연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6], 금연 상담 횟수가 증가할수록 금연 성공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10-11], 금연 중재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은 흡연자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연 클리닉의 등록자는 40만 명 수준으로 한국 흡연자를 1,000만 명 정도라고 볼 때 흡연자의 4% 정도만이 금연 클리닉의 혜택을 보고 있다[8].

지난 10여 년 동안 건강관리 분야에서 금연과 관련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는 무수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금연에 관련된 영향요인이나 흡연 행동 또는 금연 행동과 스트레스, 음주 행동 및 생리적 영향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양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2-14]. 금연에 성공한 원인이나 성공자의 특성 및 실패한 주요 이유 및 내면적 문제점 등에 대한 질적 연구가 부족하였다[15].

남성 흡연자의 경우 1일 평균 흡연량이 남자 17.6개비, 여자 12.5개비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흡연량을 보였다[5]. 또한 남성 흡연자의 경우 여성 흡연자보다 금연 시도율과 성공률 모두 더 높은 결과를 볼 때 남성 금연 성공률은 적극적인 금연 정책 방안이나 중재를 통해 더 향상될 수 있다[9-10, 16].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살아 있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기술하여 인간 행동의 이면에 숨어 있는 관념, 느낌, 신념을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과정에서의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들의 금연 시도 경험을 파악하여 금연을 시도하는 남성 흡연자가 지속해서 금연을 시도하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통하여 남성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하면서 어떤 경험을 겪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남성 흡연자가 금연 시도를 통하여 어떤 경험으로 금연에 성공하고 유지해 나가는지를 탐색하여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문제는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남성 흡연자들의 금연 시도 경험에 관하여 Giorgi (2009)의 현상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탐구하는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B 광역시에 사는 적어도 한 번 이상 금연을 시도한 성인 남성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면담과 녹취를 수락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눈덩이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처음 참여자는 연구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40대 남성으로 흡연 후 금연 시도의 경험을 가진 자였다. 처음 참여자와 심층 면담 후 그 남성을 통해 금연 시도 경험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혼, 별거, 이혼, 재혼, 사별 등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남성을 소개받았다. 총 11명의 남성이었으나, 심층 면담을 1회 실시하였던 1명의 연구 참여자가 1차면담 후 심경의 변화로 2차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참여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1명도 1차면담 후 2차면담 시 면담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최종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참여자는 9명이었다. 참여자 중 2명은 미혼, 4명은 기혼, 이혼 2명, 사별 1명으로 개별 심층 면담은 참여자별 2회에서 3회 진행되었다. 인터뷰 장소와 시간은 참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면담시간은 1회당 40분에서 100분 가량 소요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든 면담내용을 녹음한 후에 연구자가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다.

2.3 자료 분석

전사된 자료는 Giorgi(2009)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4단계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전체를 인식하기 위한 단계로, 필사한 자료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느낌과 경험의 윤곽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의미 단위를 구분하기 위한 단계로, 참여자의 하부주제를 단어, 구, 문장, 단락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의미가 전환되는 자료를 찾아 표시하였다. 세 번째는 추출된 의미 단위는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분석 노트에 의미 단위의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네 번째는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기 단계로, 참여자의 하부주제에서 찾아낸 의미의 단위를 간호학 언어로 전환하였다. 다섯 번째는 변형된 의미의 구조를 통합하기 위한 단계로, 찾아낸 의미 단위들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고 주제 범위를 찾고 구성 요소를 분류하였다. 전후 맥락과 관계성 및 관점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들을 합성하여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의 의미 구조를 구성하였다.

2.4 엄정성

본 연구의 신뢰성과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의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과 중립성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위하여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 녹음되고 기록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기술한 내용이 참여자의 하부주제와 일치하는지 질적 연구자 1인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 둘째,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인 적용 가능성은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보는 것으로 Giorgi(2009)의 네 단계 자료 분석 절차를 엄수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연구결과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자 간 분석 결과를 상호 검토 및 논의하였다. 넷째, 본연구결과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뷰 도중 및 결과 분석 시에 개방적인 태도로 선입견을 배제하고 의미를 해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주제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녹음됨을 밝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렸다. 또한 면담 이후 연구자에게 요청하면 면담 내용의 삭제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사 된 자료는 모두 폐기하여 연구자료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면담 자료는 익명처리하여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2.6 연구자 준비

책임 연구자는 B 광역시 교육청에서 시행한 '2016학생 흡연 예방 정책 방안'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도 학생들이 B 광역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질적 연구 측면에서는 석·박사학위 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으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질적 연구 학회 정회원으로 년 5~6회 이상의 연구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금연 사업의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두 번째 연구자 또한 매년 1회 이상의 질적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질적 연구 학회 정회원으로 질적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3. 연구결과

Table 1. Male smokers' experiences of smoking cessation attempts

Categories	Sub-categories
Attempt's to smoking cessation	The bad glances of the people around you
	Economic burden
	Ill health
Several failed attempts to smoking cessation	Smoke automatically when you drink
	Habitually closing one's hands on tobacco
	Stress-relief measure
Desperate need for help	Strong national smoking cessation policy
	Strong punishment for smoking
	The help of a family or acquaintance.
An important factor in the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Improvement in one's health
	National policy, such as raising cigarette prices.
	Unadulterated attempt to smoking cessation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9명이었으며, 흡연 기간은 3년에서 34년까지로 금연 유지 기간은 12개월부터 11년까지였다. 참여자 3명은 기혼, 2명은 미혼, 이혼, 그리고 1명은 사별과 별거 상태였다.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금연 경험과 관련된 4개의 범주(category)와 12개의 하위범주(sub-category)가 도출되었다(Table 1). 범주와 하위범주 및 의미 있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3.1 범주: 금연을 시도하게 됨

'금연을 시도하게 됨'의 간호학적 진술은 주변 사람들의 나쁜 시선, 경제적 부담, 건강이 나빠짐 등으로 참여자들은 흡연을 시작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흡연이 해롭다는 것을 깨닫고 자의반 타의반 금연을 시도하게 되었다.

3.1.1 주변 사람들의 나쁜 시선

"기독교인데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이중인격자인거 같이 생각되고, 담배도 피면서 기도하면 죄스럽고, 필 때마다 누가 볼까 숨어서 피웠어요"(참여자 4)

"학교 다닐 때는 숨어서 피웠어요. 처음에는 멋있다 생각하고 피웠는데. 피우면 피울수록 자꾸 사람들이 날라리 정도로 대하더라구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피울 때는 그냥 피우고 저 혼자 피울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피웠어요"(참여자2)

"몸이 안 좋아져서 계속 기침이 나고 하는데도 담배를 못 끊어서 계속 피우니까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데. 그것도 못 끊나 하는 눈으로. 그리고 가래가 나오고 하니까 좀 더러워지고 몸에서 담배 냄새도 나고.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하고"(참여자 8)

3.1.2 경제적 부담

"담뱃값이 너무 비싸니까. 담배꽁초 모아서 종이에 말아서도 피워보고. 옛날에는 담배 몇 보루는 집에 있었는데 자꾸 담뱃값이 오르니까. 담뱃값 매일 모으면 집도 한 채 샀을 거야. 혼자 사는데 담배 살 돈도 없고...."(참여자 8)

"하루에 만원 들고 나가면 담배 사고 나면 다 잔돈이 되는데 잔돈은 뭐 금방 없어지고. 용돈 받아쓰는데 담배 사고 나면 없어요. 내가 담배 끊어서 부자 될 건 아니지만. 집에 애도 크고 하는데 담뱃값이 너무 부담스러워요"(참여자 3)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자꾸 자꾸 담뱃값이 오르니까 돈은 없고. 부모님 돈에 손도 대게 되고.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웠는데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끊어야 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도 끊지는 못했지만"(참여자 7)

3.1.3 건강이 나빠짐

"몸이 엄청 체력도 좋고 좋았는데 담배 피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다가도 가래가 나와서 막 뱉고, 걸을 때도 힘들고 폐도 안 좋아 지는 거 같았어요. 담배 때문에"(참여자3)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면 속이 안 좋고 머리가 대개 아팠어요. 근데 알면서도 폈는데 술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몸이 확 안 좋아지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나이 들어 담배를 피우면 노화도 빨리 오고 피부도 안 좋고 폐암도 걸릴 거 같아요.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참여자 5)

"30년 정도 담배를 피웠는데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기침할 때마다 폐병환자처럼 구역질이 심해서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기침 좋아지면 다시 담배를 피웠어. 내가 뭐

할라고 이리 담배를 피우노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한달 정도 담배를 끊었지. 그래도 다시 괜찮아져서 피웠지만“(참여자9)

2.1 범주: 여러 차례 금연에 실패함

참여자 모두 최소 3회 이상 여러 차례의 금연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새해가 되면 매년 금연을 결심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수차례 금연에 실패함'의 간호학적 진술은 술자리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함, 습관적으로 손이 감,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나타났다.

3.2.1 술자리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함

”회사에서 회식할 때 다들 담배 피고 있고 그때 권하면 술 못 거절하는 거랑 똑 같아요. 남자들도 권하면 거절하기 어렵거든요. 한 달 내내 담배 끊다가도 친구랑 약속 있어 가면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담배를 피워버리고. 사람을 안 만나야 해요. 담배를 끊으려면“(참여자 5)

”한 일주일 담배를 끊었더니 몸이 싹 좋아져서 그때까지는 참았는데 결국 술자리 가서 담배를 폈지. 사람들이 아 그냥 한 대 피우소 하는데 어쩔 수 없어 한 대 두 대 하다 보니. 술자리 아니면 안 피우는데 술자리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참여자 6)

”대학 와서 담배를 완전히 끊었는데 대학오니까 매일 매일 동아리에서 아니면 학과에서 동기를 선배들이랑 술을 먹고 생각보다 담배 피우는 동기들도 많았어요. 여자애들도 담배 피우고. 그래서 술 먹으니까 담배 생각도 많이 나고 권하면 같이 피우고. 술 먹으면 전부 다 담배 피워요“(참여자 1)

3.2.2 습관적으로 손이 감

”옆에 누가 담배 피우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 밥 먹고 나면 반듯이 식후땡이라고 습관적으로. 그거 고치기가 제일 어렵고. 커피 한 잔 담배 한 대 필 때 그 맛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담배 끊는 거는 습관이 제일 큰 영양을 주거는 같아“(참여자7)

”일하러 나오면 담배 한 대 무는 건 습관인데. 밤에 트럭 운전하면 잠이 너무 오고 그때 커피보다 담배한대 피우면 잠이 확 깨더라고. 그러니 밥 먹고 피우고 잠 오면 피우고 화장실 가서 피우고 그걸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끊었다가도 습관적으로 담배가 보이면 피우는 거지요. 이 습관이라는 게 제일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피워버리니까요“(참여자 8)

”제일 어려웠던 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때 비몽사몽 아무 생각도 없이 나도 모르게 변기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제일 힘들었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물고 있는거. 그걸로 계속 실패해서 집에 담배를 전부 없애 버렸어“(참여자 6)

3.2.3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피움

”(담배를 피우면) 아~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왜 안했지? 아~ 좋다 편안해 지고 좋아지는 거지. 특히 와이프 죽고 계속 줄담배 물고 그게 한 2년 가더라고. 습관성도 무섭고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유혹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애쓰고. 그러다보니 술이 자꾸 늘긴 했어요“(참여4)

”경비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막말하고 하면 정말 화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내가 할 수 있는게 없지요. 그래서 그 작은 공간에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 같던 것도 잊혀지고. 담배 한 개비에 인생이 있더라고요“(참여자 9)

”몸이 좀 안 좋아서 끊었다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피웠어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담배를 피우면 그 순간에는 다 잊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아 그게 니코틴이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근데 그것도 좀 있으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지요. 이혼하고 맨날 술 담배로 살았어요“(참여자6)

3.3 범주: 간절한 도움이 필요함

참여자들은 금연을 시도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금연을 실패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금연하기 힘겹다고 진술하였다. 그들은 금연을 시도하고 금연을 유지하기 위해 '간절한 도움이 필요함'을 진술하였고 이에 따른 간호학적 진술은 강력한 국가 금연 정책, 흡연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호소하였다. 국가적으로 많은 금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상으로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국가에서 시도하는 정책이 참여자들에게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3.3.1 강력한 국가 금연 정책

“24시간 경비 서고 집에 가서 자야지. 보건소는 언제 가요. 그리고 우리는 보건소에서 그런 금연 해 주는 지도 몰랐지. 누가 그걸 아노. 그래가지고 안돼요. 뭔가 좀 더

우리들한테 와 닿는 걸 해 줘야지. 도움이 안 돼. 도움이.”(참여자 9)

“제 친구가 보건소에 가 봤다고 하던데. 계속 가야 되고. 그것도 일찍 문 닫고 주말에 안 하니까 몇 번 가다가 못 갔데요. 우리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데 보건소 가서 금연 도움 받는 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끊으려도 해도 잘 안되어 억지로라도 뭔가 누군가가 국가가 개입해주면 좀 나을 텐데.?(참여자 4)

”나라에서 금연 프로그램 한다고 해도 뭐 그걸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될지. 막상 가려고 해도 시간도 없고. 뭔가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뭐 직장으로 그 동네 보건소나 국가에서 나와서 금연 교육이나 검사 같은 거 입으로 뭐 부는 거 나 아니면 소변검사라도 해 주던가. 직접 와서 뭘 해주고 해야 느끼지 보건소는 집에서 노는 아줌마들이나 갈 수 있지. 막상 우리한테는 나라에서 하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참여자8)

3.3.2 흡연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나도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거든요. 뭐 그때는 주민등록증 보자고도 안했고 근데 지금도 다 형식적이라 애들도 다 길에서 담배 피우고. 그게 문제인거예요. 한 번 피우면 끊기가 얼마나 힘든데. 처음부터 교육 잘하고 강력하게 벌주고 해서 아예 시도를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참여자 1)

”우리 애들이 그러는데 요즘 중학생들은 다 담배 피우고 초등학생들도 반에서 반은 담배를 피울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여학생들도 물론이고.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너무 쉽게 담배를 구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 애들은 편의점을 좋아하는데 편의점 가면 담배 다 보이고 무슨 딸기맛 박하 맛 커피맛 이런 것도 있다고. 이게 무슨 담배를 끊게 하겠다는 건지 피우게 하겠다는 건지. 전자담배도 계속 나오고. 나라가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참여자 5)

”다른 나라는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면 다 잡아가고 문 닫게 한다고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담배인삼공사에서 저거 돈 벌라고 애들한테도 다 담배 파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잘못이지. 우리가 다 이렇게 담배 때문에 고생한 것도 다 나라 탓입니다. 애들은 담배 못 사게 하고 못 피우게 해야지. 파는 사람 다 잡아 넣고. 피시방 가보세요. 거기 초딩들 다 앉아서 담배 피워요“(참여자 3).

3.3.3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몰래 숨어서도 피워보고. 담배 한 갑사서 한 두 개비 피우고 버려도 보고.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딸이 제발 소원이라고 끊어 보자고 해서 하루 끊었다가 다시 피웠다가 한 일주일 끊었다가 다시 피웠다가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꾸 끊어보고 또 피워보고 그러다가 끊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날 괜찮더라고요(참여자 7).

”힘들 때마다 담배가 제일 생각나요. 그래도 가족들이 계속 힘을 줍니다. 우리 집 애들이 어느 날은 달력에다가 뭘 표시해 둔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제가 담배를 안 피운 날이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물어서 하루하루 적고 있었어요. 저한테 8일째니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딸애가 말하더라고요. 아 내가 남자가 돼서 이것도 못 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안 피고 있어요. 근데 한 4년 동안 참았는데 지금도 가끔 힘들면 생각이 나요. 담배는 끊은 게 끊은 게 아니네요“(참여자 6).

”애인이 계속 끊으라고 금연 담배도 사다주고 병원에 약 처방 받으러도 같이 가 줍니다. 결혼도 해야 하니까 끊어보려구요. 어릴 때부터 피워서 7년 이상을 피웠는데 끊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마다 여자 친구가 저한테 애교도 부려주고 뽀뽀도 해주고 제가 지금 거의 일 년째 끊고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옆에서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해 주니까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참여자 2).

3.4 범주: 금연을 성공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있음

참여자들은 여러 차례의 금연 시도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9명의 참여자는 현재 12개월 이상 금연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진술한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건강이 호전되는 것과 담뱃값 인상 등의 국가 정책 그리고 참여자에게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

3.4.1 건강의 호전

”11년이나 피던 담배 끊고 나니 좋아지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다시 예전처럼 힘이 넘쳐요. 가래도 안 생기고. 내가 건강해 진다고 생각하니 사람들 만나는 것도 덜 부담스럽고 전에는 사람만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왠지 자신이 안나고“(참여자 3)

”스텐트 넣고 죽다 살았는데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운동도 조금씩 하고 하니 이제는 완전 좋아 진 거 같아.

이제는 피우라고 줘도 안 피울 거 같아. 한 11년 좀 지났는데 그 사이사이 진짜 유혹도 많았지. 그래도 내가 아프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잘 참고 있어. 요즘은 건강도 좋고. 건강이 이렇게 안 나빠졌으면 못 끊었을 것 도 같아요“(참여자 8)

”폐동맥 터져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죽는 다 했거든. 담배 또 피면 죽는다 하더라고 그래도 못 끊었는데. 암튼 끊고 나니 숨 쉬는 건 훨씬 편한 거 같아요. 1년 정도 참았는데 잘 참아야지요. 트럭 몰다 객사 안 하려면. 누가 뭐래도 자기가 담배 끊으면 뭔가 좋아지니까 끊는 거지요“(참여자 7)

3.4.2 담뱃값 인상 등의 국가 정책

”내가 지금은 경비라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담뱃값이 너무 부담이 돼서. 하루하루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가 이 비싼 걸 피워도 되나 싶어서 억지로 끊었지요. 식구들 보기도 미안하고. 돈도 없고. 담배 살 돈이 없는 데 어떻게 피우겠노“(참여자 9)

”담뱃값이 비싸서 끊었지요. 어찌되었건 담뱃값 오르고 내 주위에 많이 끊었어요. 물론 다시 피운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니까. 이혼하고 먹고 살길도 막막한데 담배 사 피울 돈도 없고. 내가 그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더니 나라가 돕네 도와“(참여자 5)

”이혼하고 사실 형편도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도 변변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지요. 그래서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 술 먹고 담배피우고 하다 보니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끊기는 끊었는데. 담뱃값이 오르니 끊기는 끊었어요“(참여자 8)

3.4.3 포기하지 않는 금연시도

”학교에서 아무리 금연교육하고 나라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피워 버리면 그만이지요. 어찌되었건 본인이 금연을 해야 겠다. 실패해도 또 해야 겠다. 다시 해 봐야 겠다 생각을 해야 금연을 성공해요. 지가 싫다고 하면 안되는 거지. 결국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해“(참여자 9)

”한 10번 실패했었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포자기가 되고 나 스스로가 한심하고 무능력하고 비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기했지. 중간에 오래 피웠어요. 근데 결국 내가 다시 마음을 먹고 다시 시도했으니 오늘 내가 이렇게 나 담배 끊으소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계속 계속 포기 안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참여자 7).

”샐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누가 담배를 한 번만에 끊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 번 실패하고 또 피우고 또 해보고 하면서 끊어요. 그러니 해 보지 않으면 마음을 안 먹으면 금연은 못하는 거지요. 제 아무리 나라에서 벌금 먹이고 벌주고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인 거라. 그러니 일단은 지가 마음을 먹고 금연을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참여자 5).

이상과 같이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은 금연을 시도하게 되었으나 재흡연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러 차례 금연을 실패하였다. 그러나 금연을 시도하고 유지하면서 그들의 경험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금연 시도도 중요하였으나 그와 함께 강력한 국가 정책이나 외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논의

본 연구 참여자들의 금연 시도 경험의 본질은 4가지 범주에 12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흡연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나쁜 시선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불안, 우울, 외로움 등을 경험하거나 흡연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가 더욱 악화하면서 금연을 시도하였다[18]. 국가에서 금연 정책으로 홍보 중인 폐암 사진을 보게 되면 금연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된다. 강력한 이미지 형태로 전달하기 위한 경고는 건강상 부정적 결과를 묘사하여 흡연자에게 흡연의 혐오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비흡연자에게는 담배를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19]. 이러한 범국가적인 금연 홍보 효과 등으로 주변 사람들의 흡연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과 담뱃값 인상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참여자들은 금연을 시도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금연은 흡연 시작 연령, 동료의 영향, 사회적 부정적인 반응, 흡연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금연하겠다는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20],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유사하게 진술하였으나, 건강이 악화하면서 금연을 시도하게 된 점은 차이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여러 이유로 금연을 시도하게 되지만 수차례에 걸친 금연 시도에 실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흡연의 위험성은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 우울 성향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

우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21], 참여자들도 흡연의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술자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습관처럼 흡연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재흡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연을 시도하였다. 금연과 재흡연을 되풀이 하면서 참여자들은 외부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들 스스로 금연을 유지하기에 역부족이다. 참여자들과 같이 생계형 근로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시간조차 힘든 일이 된다. 참여자들은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보건소나 병·의원 방문에 제약이 있어 이동클리닉 확대 운영 등으로 시간,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주기를 원하였다[22]. 또한, 정부의 정책을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길 원하였고, 진료를 받는 기회를 늘리고, 그 기회들이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금연 정책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모든 국민에게도 금연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탁하였다[23]. 참여자들은 여러 차례의 금연의 성공과 실패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국가 정책과 금연교육의 실효성을 비판하고 실제 현장에서 금연 성공률이 낮은 금연 상담법의 보강과 개선을 요구한다[22]. 참여자들은 흡연자만의 교육이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금연교육은 필요하다고 말한다[24]. 참여자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부담감과 악화한 건강이 호전되면서 그리고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금연을 성공시켰고 또한 유지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건강한 가족 지지체계는 가정 내 건강 행동에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금연 등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 금연 유지에 가족이나 지인의 관심과 격려가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25]. 따라서 금연에 성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의 정책과 가족의 지지 그리고 본인의 금연 의지 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26].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금연 유지전략으로 전화 상담과 문자메시지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27]. 참여자에게 누군가가 지속해서 금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금연 의지 강화와 금연 성공 유지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금연에 성공하고 지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특성별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한 지속인 연구와 정부지원이 필요할 것이다[17]. 모든 금연 자원이 동일하게 효과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사전에 금연 상담 등을 통해 개별 남성 흡연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금연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28].

참여자들은 현재 금연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흡연 유혹을 자주 느낌으로써 금연은 평생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어려운 여정이라 생각하고 금연 결심을 지속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25].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단위 학교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흡연에 대한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아고 진술하였다. 또한 전문가 또는 전담 인력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자가 금연을 계획하여 시도하고 조절과 통제를 통해서 노력했을 경우 금연에 실패하더라고 금연을 시도하지 않은 자보다는 금연 성공률이 높은[22-23], 선행연구와 같이 참여자들도 금연 실패와 성공을 수차례 반복하며 끊임없이 금연을 시도하였다. 금연 동기를 유발하고 사회 구조와 금연 자원 그리고 금연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이 있을 때 금연의 성공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29].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인식에서 본인 스스로의 선택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가족과 지인들의 금연 권유를 받은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하고 성공하는데 가장 큰 이유라는 점에서[24], 본 연구의 참여자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금연은 한 번 성공 했다고 하더라고 언제든지 다시 흡연을 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금연을 유지할 수 있다[26]. 금연을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과 금연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 요인에 대한 경험은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성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 내실을 다져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 행위의 의미들이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을 받음을 생각해 볼 때 현상학 이외의 다른 질적 연구 방법 역시 남성의 금연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의 금연시도 경험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금연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유혹을 받음으로써 내적 유혹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요인으로 금연에 성공하고 이를 유지해 가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흡연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흡연으로 인해 참여자들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은 흡연자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남성 흡연자들이 건

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흡연 남성의 금연 시도 경험에 더욱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참여자 개인이 금연 동기를 가지고 금연을 시도하지만, 사회 국가적인 금연정책이 뒷받침되어 금연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조성하고, 금연에 성공하였을 경우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도 어떻게 금연을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참여자를 위해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더욱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 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금연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을 직접적으로 기술하여 인간 행동의 이면에 숨어 있는 관념, 느낌, 신념을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을 나타내는 4개의 범주는 '금연을 시도하게 됨', '수차례 금연에 실패함', '간절한 도움이 필요함', '금연을 성공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있음'이였다. 이 경험의 하위범주들은 '주변 사람들의 나쁜 시선', '경제적 부담', '건강이 나빠짐', '술자리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함', '습관적으로 손이 감',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피움', '강력한 국가 금연 정책', '흡연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건강의 호전', '담뱃값 인상 등의 국가 정책' '포기하지 않는 금연 시도'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흡연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쉽게 금연을 시도하기 어렵고 금연을 시도하였다고 해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극단적인 질병이 걸리지 않는 한 금연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강제적이고 강력한 국가의 정책을 요구하며, 자신이 아닌 타인의 개입으로 성공적인 금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금연은 스스로 이겨내고 참아내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호전되는 건강을 보며 지금까지 금연을 유지해 오고 있다. 금연을 성공하고 오랜 기간 금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나 금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감정 깊숙한 금연 의지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나 정부 등 외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에 전반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여 병원을 중심으로 한 임상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실무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에 근거한 한국 남성 흡연자를 위한 금연 간호중재방법을 개발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금연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나 금연교육에 있어서 그에 따른 치료적 접근과 남성 흡연자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적 접근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통해 흡연자를 금연자로, 비흡연자를 지속적인 비흡연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여 금연 시도의 주요인과 금연 성공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흡연 남성의 금연 프로그램 개발 시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을 통해 금연 성공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스스로 금연에 성공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일반적 상황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 경험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제언해 본다.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Community Integration Health Promotion Projects Guideline [Smoking cess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p. 10-11, 2018.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Statistics 2016: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Jan. 1, Vol. 3, 2018.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

[3] M. J. Tamar, A. Rachella, H. Geoffrey, L. K. Sharon, Y. Malisa, "The Gendered experience of smoking stigma: implications for tobacco control", Journal of Critical Public Health, Vol. 27, No. 4, pp. 443-454, 2017.

[4] E. J. Jung, A. H. Song, H. J. Youn, "A study on smoking status and related factors in Korean adolescents determined using data from the 5-7th(2010-2016)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PDF ic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8, No. 5, pp. 621-630, 2018.

[5] T. M. Song, J. Y. Lee, J. Y. An, "The Patterns and Risk Factors of Smoking Relapse among People Successful

in Smoking Cessation at the Smoking Cessation Clinics of Public Health Center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7, No. 1, pp. 123-129, 2010.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Projec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Vol. 117002, 2016.

[7] J. E. Hwang, Y. M. Oh, Y. S. Yang, J. E. Lee, S. Y. Lee, "Exposure to cigarette advertisements and displays at the convenience stores and its impact on recall and product purchas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35, No. 1, pp. 1-12, 2018.

[8] H. H. Kim,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obacco Control Policy in Korea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Tobacco Free, 2017 Winter, Vol. 16, No. 1, pp. 4-14, 2017.

[9] E. J. Hwang, "Related Factors of Smoking Cessation Success and Maintenance of Patients using Smoking Cessation Clinic at a Public Hospital : focused on patient demographics and smoking related facto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3 pp. 535-543, 2019.

[10] J. S. Kim, S. J. Kang, D. J. Kim, I. Y. Choi, B. S. Choi, "Success factors of new enrollees at smoking cessation clinics in the nationwide public health centers in Korea based on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Korea Public Health Association, Vol. 44, No. 1, pp. 17-30, 2018.

[11] Y. H. Lee, J. S. Ko,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Cessation Intention among Current Smokers with Diabetes: Analysis of the 2013 Community Health Survey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 17, No. 3, pp. 184-192, 2017.

[12] S. J. Lee, S. H. Park, C. H. Kim, D. H. Lee, K.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he will cease tobacco smoking for small and medium scale industry male worker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vol. 24, No. 1, pp. 33-39, 2012.

[13] H. S. Yoon, K. S. Ahn, Y. C. Cho,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contents and smoking habits in manufacturing male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3, pp. 2047-2054, 2015.

[14] U. S. Shin, Y. C. Cho,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moking behaviors among small scale manufacturing male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509-8515, 2015.

[15] K. H. Oh, D. D. Han, "Qualitative study on how male students in middle school embed smoking in their daily live: focusing on the 'nonun-aedul'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43, No.1, pp. 45-72, 2016.

[16] H. Y. Park, J. A. Jun, S. J. sohn, "Longitudinal Patterns of Stages of Changes in Smoking Behaviors among Korean Adult Smokers: Applying the Trans theoretical Model of Chan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9, No. 1, pp. 5-28, 2018.

[17] S. R. Shin, C. O. Lee, G. C. Jeong, "Effect of a smoking cessation motivational program for adolesc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9, No. 2, pp. 130-139, 2013.

[18] S. W. Chun, J. W. Park, "The Effects of Graphic Pictorial Health Warnings on Tobacco Packaging on Attitudes toward Stopping Smoking and Intention to Stop Smoking: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yles",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Vol. 17, No. 3, pp. 591-613, 2016.
DOI : https://doi.org/10.21074/kjlcap.2016.17.3.591

[19] Y. H. Kim, K. W. Kim, M. O. Kang, N. H. Kim, "A Phenomenological Study on Smoking Experience in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 Child Health Nursing, Vol. 16, No. 1, pp. 10-19, 2010.
DOI: https://doi.org/10.4094/jkachn.2010.16.1.10

[20] E. J. Jung, A. H. Song, H. J. Yeun, "A study on smoking status and related factors in Korean adolescents determined using data from the 5-7th(2010-2016)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PDF ic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8, No. 5, pp. 621-630, 2018.

[21] H. R. Ahn, "Factors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Quit Smoking in Community-dwelling Male Adult Smokers",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6, No. 4, pp. 364-371, 2015. DOI : Https://doi.org/10.12799/jkachn.2015.26.4.364

[22] E. G. Son, Y. J. Kim, S. J. Yun, H. Y. Jung, "Understanding Male Adult's Awareness and Motivation of Non-smo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17, No. 4, pp. 384-394, 2017.

[23] Y. J. Jin, J. W. Yoo, "(The)Effect of Induced- Hypocrisy Advertisement on Smokers' Attitudes in Anti-Smoking Campaign", A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Vol. 13, No. 4, pp. 215-226, 2015.

[24] Y. L. A. Song, J. 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actors and drinking/ smoking among middle-aged me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30, No. 1, pp. 13-25, 2013.
DOI: Https://doi.org/10.14367/kjhep.2013.30.1.013

[25] S. M. Koo, J. H. Kang, "Factors Affecting Smoking Cessation Success during 4-week Smoking Cess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8, No. 2, pp. 165-172, 2017.

[26] E. S. Kim, H. O. Choi, "Effects of a smoking cession program using telephone counselling and text messaging for patients after ischemic heart diseas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2, pp. 7248-7258,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2.7248

[27] J. S. Shin, Y. K. Kim, "Female Smokers' Experiences of

the Process of Smoking Cessation Attempts", The Academy of Qualitative Research, Vol. 19, No. 2, pp. 142-155, 2018.

[28] K. Y. Park, "Predictors of intention to quit smoking among woman smok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1, No. 3, pp. 253-263, 2014.

신 정 순(Jeong-Soon, Shi) [정회원]

- 2010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노인간호학 전공 (간호학석사)
- 2017년 8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성인전공) 박사
- 2016년 3월 ~ 2018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8년 3월 ~ 2019년 2월 :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기본간호, 노인간호, 질적연구

여 형 남(Hyeong-Nam Yeo) [정회원]

- 2008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 (노인전공) 석사
- 2017년 8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성인전공)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성인간호, 질적연구